4 주 소개

4주 교육내용

4주 교육 내용을 소개합니다.

4주차 히즈쇼 주일학교는『바울 이야기: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됨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자 됨에 관해 가르칩니다.

4주 교육자료

전도사

자료DVD

· **설교용 자료**

- 설교 PPT **『"바울 이야기: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에 관한 설교 피피티를 확인합니다.』**
- 예배 PPT **『4주차 예배 진행 순서대로 피피티를 확인합니다.』**
- 소스파일 자료 **『4주는 "바울 이야기: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에 관한 소스가 제공됩니다.**

교사

자료DVD

· **찬양인도자용 자료** (챈트 2곡 제공)
- 챈트영상 **『요한복음 1장 12절 배우기 영상』**
- 챈트음원 **『요한복음 1장 12절 AR, MR』**

· **교사용 자료**
- 카드공과 진행영상
- 만들기 진행영상 **『예수님을 만난 사울 장면』** 제공

온라인 자료실 히즈쇼 홈페이지

· **온라인링크를 담당교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 **챈트 구분선 Tip**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분선을 잘 지켜 따라 해보세요.

가정

자료DVD

· **부모용 모바일 발송 파일 자료**

- 만들기, 말씀액자, 이야기맵 진행자료
- 기타 안내자료

4주차 묵상 노트

들어가며_교역자 진행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도에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이 있던 순간 그는 응답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죄의 경중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순간, 사울은 항거불능의 상태였지만 그는 부르심에 순종해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회심을 결정합니다. 죄의 경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 그 부르심에 응답이 구원 길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누며_교사들과 함께 나눔으로 준비하세요.

1.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죄의 경중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자격에 관해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 저울질 하며 주저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양심을 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예배 진행순서

	순 서	내 용	담당
예배	워십인트로	히즈쇼 자료 DVD 워십인트로 영상을 사용합니다. 〈예배 PPT 포함〉	찬양 인도자 15분
	챈 트	히즈쇼 자료 영상 DVD 챈트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2를 같이 배워볼까요!"** 〈예배 PPT 포함〉	
	찬양율동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양곡을 넣어주세요.	
	기 도	찬양인도자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사도신경	각 교회에서 준비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설교자 25분
	찬 양	히즈쇼 자료 율동비디오 '예배 기도송'을 사용합니다.	
	말씀봉독	**사도행전 8:1-4을** 봉독합니다. 〈예배 PPT 포함〉	
	설교 전 영상	4과는 설교 전 영상을 사용합니다. 〈예배 PPT 포함〉	
	설 교	**"바울 이야기: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설교자의 설교 또는 히즈쇼 설교와 PPT를 사용합니다.	
	기 도	준비된 기도자가 인도합니다.	
	헌 금	각 교회에서 준비된 인도자가 인도합니다.	
	주기도문	히즈쇼 율동비디오 '주기도문송'을 사용합니다. 〈예배 PPT 포함〉	
공과	공 과	**『4주차-바울 이야기: 사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카드공과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히즈쇼 공과진행 영상링크를 참고하세요.	교사 20분
	만들기	**『4주차-예수님을 만난 사울 장면』을** 만듭니다. 온라인 히즈쇼 만들기 진행 영상링크를 참고하세요.	
가정	말씀액자	기도제목: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실천하기: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미워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용서의 기도를 해봐요.	부모 15분
	이야기맵	카드공과 1-4번 카드공과를 엄마와 이야기하고 4번째 카드를 이야기맵에 끼운 후 이야기맵을 벽에 붙여주세요.	

설교

히즈쇼 소스자료를 활용해 기획 후 자유롭게 설교문을 적어보세요

나의 설교개요

서론

본론

결론

설 교

히즈쇼 설교개요를 참고해 자신만의 설교개요를 적어보세요

히즈쇼 설교개요	나의 설교개요
	교회에 맞는 도입예화를 적어보세요.
서론 마음 짠 마음에 미움, 질투, 거짓을 가지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화를 각자 찾아보세요]	
	문제제기 질문을 적어보세요.
서론 질문 똑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거짓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자녀 삼아 주실까요? [문제제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본문과 구절을 사용할지를 적어보세요
본론 말씀 쏙 사도행전 8장 1-4절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봐요. [분문을 통해 답을 유추합니다]	
	본문의 설명내용을 3~4가지로 간추려 적어보세요.
본론 이야기 슝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 빛과 함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후 눈을 뜨지 못한 채 사흘 동안 이끌려 시내로 간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나니아를 만나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답에 대한 설명을 진행합니다]	
	적용점을 적어보세요.
결론 마무리 뽕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설교개요

마음 짠

마음에 미움, 질투, 거짓을 가지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화를 각자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많아요. 마음에 질투가 많아요. 마음에 거짓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맞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렇다면 마음에 미움, 질투, 거짓이 없겠죠? 어? 그런데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네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마음에 미움을 담아온 친구가 있나요? 질투를 담아온 친구가 있나요? 거짓을 담아온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모두 버리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질문 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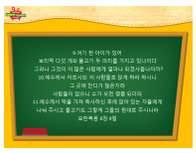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거짓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자녀 삼아 주실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거짓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랑해주실까요? 자녀 삼아 주실까요? 구원을 선물로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주실지 자녀 삼아 주실지 같이 살펴봐요.

말씀 쏙

사도행전 8장 1-4절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봐요.

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장 1-4절)



설교개요

이야기 승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 빛과 함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후 눈을 뜨지 못한 채 사흘 동안 이끌려 시내로 간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나니아를 만나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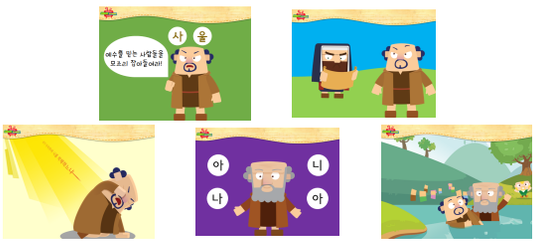
오늘 성경 속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죽음을 기뻐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피해 멀리멀리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은 심지어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잡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과 상의했어요. 또한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문서까지 만들었어요.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싼 거예요. 사울은 놀라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에 또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해야 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한 체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 이끌려 시내로 들어갔어요.

그 때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맞아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말했어요. "사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으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소."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졌어요. 사울은 그 순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 각 회당으로 찾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제일 앞장 섰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미움, 거짓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해주실까? 자녀로 삼아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어요. 사울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마무리 뽕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에 미움이 있더라도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잡아 고통을 주었던 사울도 품으신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아직 제 마음에는 미움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조금씩 그 마음을 지워볼게요."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사울처럼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사용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